# 부탄 비구니 교육 및 지원센터 개소

## 열악한 수행환경 개선 및 비구니 역량 강화에 나서

### 비구니 스님 12명 첫 입소해
### 상담·리더십 등 현대화교육
### 향후 여성 재가자 문호 확대

박영빈 객원기자



교육 및 자원센터 개원식에 참석한 체링양된 부탄 왕대비(중앙)와 따시상모 사무총장(우측).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히말라야 불교왕국 부탄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교육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비구니 교육 및 자원센터'를 공식으로 개원했다.

센터 개원식에는 비구니 교단의 최대 후원자이자 부탄왕실 어른인 아시 체링양된 왕축 왕대비가 참석했다.

7월 5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체링양된 왕대비의 생일이자 부탄 비구니의 날인 6월 21일에 맞춰 개원했다.

부탄 비구니 재단(BNF)의 사무총장인 따시상모 박사는 "부탄 비구니 재단의 오랜 꿈이 마침내 이뤄졌다.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전 세계의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현재 모든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교육과 거주에 필요한 건물들이 완공됨에 따라 공식개원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인 팀푸 남쪽 교외에 설립된 센터에 첫 입소한 비구니 스님은 12명이다. BNF측은 10인은 푸나카(Punakha)에 소재한 상첸 도르제 헨둡 사원의 강원을 졸업했고, 2인은 통사(Tongsa)에 소재한 언어문화연구소를 졸업한 스님들이라고 밝혔다.

따시상모 박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얻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여성 재가자들에게도 교육의 문호를 넓힐 것이며, 정기적으로 단기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BNF는 부탄 내 28개소의 비구니 사찰과 협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해외 비구니 승단과의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센터의 주목적은 부탄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전통적인 강원교육과 함께 현대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대외적으로 비구니라고 말하지만, 현대에는 사미니계만 전해지는 티베트-부탄 불교계에서 여성수행자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농촌이나 산악지방의 비구니사찰들은 전통적인 강원교육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후원이나 보시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F는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비구니 스님들을 부탄 각지의 농촌이나 소속 사찰로 파견하여 다른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들을 교육하며, 부탄의 불교문화를 보존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는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상담, 호스피스와 기본 건강관리, 리더십과 인재관리 등과 같은 교육은 이 센터를 졸업한 여성 수행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나설 수 있게 마련한 것이다.

따시상모 박사는 "해당 센터에선 38개의 모듈로 구성된 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 현재 BNF에선 이를 통해 수행을 시작하거나, 관심이 있는 여성과 대중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자급자족을 통한 역량강화로 건강한 수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美, 티베트 비구니 게쎄마시험 응시 시작

## 목표액 10만 달러 중 1만 6000달러 모금



게쎄 자격을 취득한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지난 7월 9일 해외불교 전문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티베트 비구니의 게쎄마 시험 응시 및 취득을 위한 기금 모금 소식을 전했다. 게쎄마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전통적인 강원 교육을 마치고 취득하는 가장 높은 학위이다.

모금을 진행하는 곳은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인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로 여성 출가자의 고등교육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게쎄마 기금은 목표액 10만 달러 중 현재 1만6000달러(한화 약 1800만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관계자는 "게쎄마 기금은 여성출가자의 훈련과 자격검정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님들이 재정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각종 부대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쎄'란 티베트어로 '선지식'이라는 뜻으로, 20년 가까이 되는 전통강원 교육을 마치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스님에게 부여되는 법계다. 일반사회의 불교학 박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이다. 게쎄 시험은 2011년까지 비구 스님만 자격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가 "여성출가자들도 남성출가자들과 수학하고 수행하는 데 차별이 없다"고 천명하면서, 2013년부터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게쎄 시험응시 및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는 "우리 프로젝트로 비구니스님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비구니스님들은 교학이나 수행을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맹인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스님이라도 대부분의 명상수행과 수행지도에만 역할이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로 여성출가자가 고등교육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모델로 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들 스스로 사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日, 호우로 흩어진 불상들 방치돼

## 박물관에 임시보관, 예경처 소실

## 마을 단위 신앙중심지
## 호우피해에 복구 난망



자료관에 임시보관중인 불상들을 가리켜 보이는 오히라 카즈아키 관장.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지난해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현 히토요시(人吉)시의 쿠마(球磨)지구에서 유실된 불상들이 예경을 받지 못한 채 박물관에 방치되고 있다. 일부 불상들은 본래 봉안되어 있던 법당이나 사찰들이 소실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다. 7월 9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갈 곳을 잃은 성보들에 대해 보도했다.

히토요시시의 쿠마지구는 오랜 세월 전란이 피해가 적었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불상과 사찰 등이 다수 보존되고 있다. 해당지역 역사민속자료관의 오히라 카즈아키 관장은 "가마쿠라 시대부터 700년간 한 가문의 영주가 통치한 까닭에 정세가 안정됐고, 마을단위로 신행활동을 위한 소규모 사찰이나 법당 등을 건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주나 스님이 불상을 조성한 것이 아닌 마을주민들의 발원으로 불상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중근세의 불상을 반상회나 지역 신행단체가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일본의 유명 역사작가 시바 료타로는 쿠마지구에 대해 "일본에서 가장 풍요로운 은신처"라며 찬사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생활과 밀착된 까닭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불상이나,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당들도 다수 존재해 이에 해당하는 성보들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호우에서 쿠마지구에서만 15개소의 법당이나 신사가 파괴됐고, 80구 이상의 불상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호우에 휩쓸려 실종된 불상은 물론, 주민들의 피난으로 인한 관리자 부재로 갈 곳을 잃은 불상들도 다수. '요미우리신문'은 "수백 년간 이어온 지역신앙의 전통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라 관장은 "지난해 수해 후 자료관에 임시로 보존했던 불상은 75구로 모두 휩쓸려온 토사나 붕괴된 법당에서 구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장은 "수해직후의 조사에선 문화재로 지정됐던 불상이 행방불명되거나, 겨우 수습했으나 복구 중의 혼란 속에 도난당한 경우도 보고됐다"며 안타까운 현황을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자료관에 임시 보관됐던 불상의 상당수가 다시 주민들의 품에 반환돼 예경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장고엔 44구의 불상들이 원 봉안처 불명, 혹은 갈 곳을 잃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 호우로 대대로 살던 집과 관리하던 약사당을 잃어버린 한 주민은 "자료관에 대대로 모셔오던 약사여래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살던 집도 모두 철거된 마당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현 상황에 대하여 구마모토 대학의 이나바 츠구하루 교수는 "불상을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수리나 유지가 이어지기 어렵다. 이대로는 지역의 전통과 보물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나바 교수는 "지난 2016년도 구마모토 지진 때엔 미지정 문화재들의 피해에 대해 모금됐던 구호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사용됐던 적이 있다. 이번 호우피해를 입은 문화재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印, 고대유적서 승원 발견돼

## 발굴과정에서 불탑발견, 조사 후 재공개




승원 유적과 불탑에서 발굴된 유물 포스터.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7월 7일 인도 주요 언론지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바드나가르(vadnagar)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 승원 유적과 불탑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전했다. 고대 도시 유적 한 가운데 위치한 승원 유적은 약 2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의 고향으로 유명한 바드나가르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지는 2000년대 초반, 마을 공사 중에 발견됐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이 도시유적은 한가운데 불탑이 봉안된 승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고고학 연구소(ASI)는 지난 7년간의 발굴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이 유적이 명실상부한 불교 유적지임을 밝혔다.

ASI의 수석 고고학자 아비짓 암베카르 박사는 "바드나가르 유적은 북인도의 다른 불교 유적지인 데브니 모리(Devni mori) 유적과 동시대에 건축됐을 가능성이 높다. 불탑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데브니 모리 유적에서 발견된 봉인과 동일한 봉인이 발굴됐다. 봉인에는 '일체지에 예경합니다(Namas-sarva-gyaya)'라고 날인돼 있다"고 밝혔다.

암베카르 박사는 "빨리어 문헌에서 자주 묘사되는 승원구조로, 회랑은 신도들이나 수행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증거들을 기반해, 유적지의 최초 조영은 기원후 1세기이며 기원후 6~7세기 사이에 몰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빙의지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동물·식물·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